

“꿈조차 못꾸던 시절...오늘의 나 칭찬해”

KBO리그 최초 1천500타점 등장한 ‘불혹의 해결사’ 최형우

부담 덜어내니 편안...다음 타석 준비할 수 있어 행복



“팬들께 감사 인사도 했는데 경기 취소되면 어찌나 걱정했어요.”

최형우(39·KIA)는 KBO리그 최초로 개인 통산 1천500타점 고지를 밟은 날, 가장 긴장했던 순간을 비가 내리기 시작한 4회말로 꼽았다.

사실 이날 대전에 짧고 굵게 내린 비는, 최형우가 견뎌낸 ‘아구 인생의 정마’에 비하면 웃고 넘어갈 정도의 약한 비였다.

최형우는 20일 열린 한화와의 방문 경기, 0-1로 뒤진 4회초 1사 1루에서 한화 선발 한승주의 초구 시속 145km 직구를 받아쳐 중앙 펜스를 넘어가는 투런포를 터뜨렸다.

경기 전까지 1천498타점으로 이승엽 두산 베어스 감독과 개인 통산 타점 공동 1위였던 최형우는 한꺼번에 타점 2개를 추가해 단독 1위로 올라서고, KBO리그 최초로 1천500타점을 달성했다.

팀 동료들의 축하 물세례를 받고도 환하게 웃은 최형우는 “정말 기분 좋다”며 “지난 시간이 떠오르기도 하고...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최형우는 대기만성형 타자다.

2002년 2차 6라운드 전체 48순위로 삼성 라이온즈에 포수로 입단한 최형우는 2002년 10

월 14일 대구 시민구장에서 벌인 KIA와의 홈경기에서 교체 출전하며 처음 1군 무대에 섰다. 첫 타점은 6년 뒤인 2008년 4월 1일 잠실 LG 트윈스전에서 나왔다. 당시 교체 출전했던 최형우는 연장 10회초에 투런 홈런을 쳤다.

프로 입단과 첫 타점 사이, 약 6년의 세월 동안 최형우는 삼성에서 방출돼 경찰야구단에서 군 생활을 하고, 다시 삼성에 입단하는 험겨운 과정을 거쳤다.

최형우는 “지금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는 순간은 첫 타점을 올린 때”라며 “모두가 야구다 시피 여러 고비를 넘겼다. ‘꿈을 꾸라’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꿈을 꿀 수조차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 해를 보냈다”고 회상했다.

최형우는 “이심대 중반에서야 1군에 오른 선수가 어떤 목표를 정할 수 있겠나. 그때는 그냥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곱씹으며 “1천500타점 기록에 가까워지고, 언론에 내 이름이 자주 나오면서 ‘2008년부터 16시즌 동안 중심 타자로 잘 살았다’고 생각했다. 뿌듯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만큼은 나를 칭찬해주고 싶다”고 많은 감정이 담긴 표정으로 말했다.

2011년 홈런왕에 오르고, 개인 통산 홈런 5위(365개)를 달리는 최형우는 “나는 홈런 타자는 아니다. 400홈런 기록은 생각해 본 적도 없

다”며 “내가 신경 쓰는 통산 기록은 타점뿐이었다”고 몸을 낮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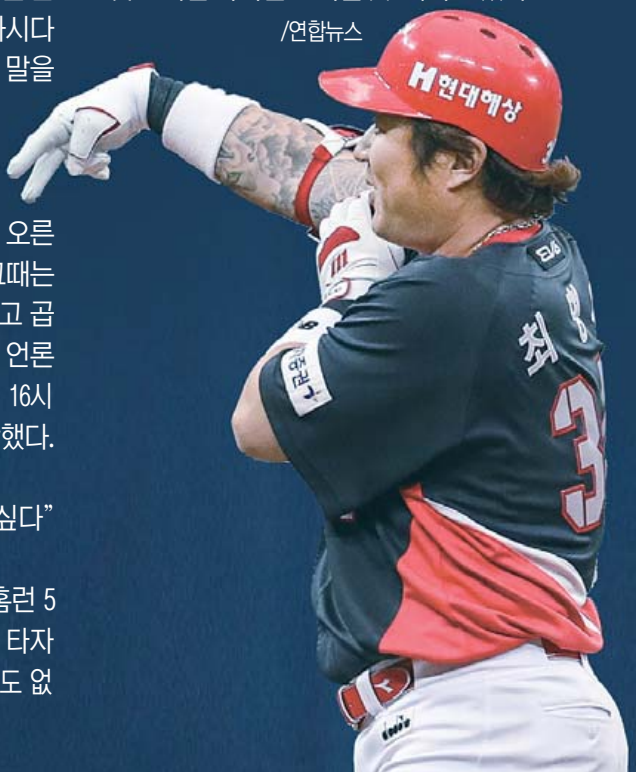
1천500타점 고지를 밟은 뒤, 최형우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다.

올해 12월이면 만으로 불혹이 되는 최형우는 “2년 전부터는 은퇴에 대해 고민도 하고 있다. 지금은 타격 성적이 괜찮은 편이어서 그런 생각이 줄었지만, ‘당장 내일 은퇴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자주 했다”고 털어놨다.

은퇴에 관한 고민이 깊어질 때마다 최형우는 “일단 후회 없이 하루를 보낸 뒤에 생각하자”고 마음을 다잡는다.

최형우는 “내일도 출루, 타점을 노리며 타석에 설 것이다. 그 타석에서 실패하면, 빨리 잊고 다음 타석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1500RBI’ 새겨진 최형우 기념 상품 예약 판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최형우의 KBO 리그 최초 1,500타점 달성 기념 유니폼, 모자, 기념구를 22일부터 예약 판매한다.

기념 유니폼 전면에는 1,500타점을 나타내는 ‘1500RBI’ 문구와 최형우의 날카로운 타격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TIGERS 워드마크가 새겨

진다. 유니폼 우측 하단에는 최형우 선수의 자수 사인이 각인되고, 우측 소매에는 1,500타점 기념 패치가 부착된다.

기념 모자와 기념구도 제작된다. 모자 측면에는 1,500타점 기념 패치가 부착되고, 뒷면에는 최형우 선수의 등번호인 34번을 상징하는 이

미지가 들어간다. 기념구에도 패치와 등번호 이미지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념 상품은 22일 오후 2시부터 28일 오후 2시까지 예약할 수 있고, 8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상품 상세 디자인 확인과 상품 관련 문의는 온라인 팀스토어(<http://teamstore.tigers.co.kr/>)에서 할 수 있다.



/박희중기자

기대보다 우려커진 ‘미완의 클린스만호’

득점없는 공격 축구 골 결정력 강화 과제

공격적이고 재미있는데 못 이기는 축구. 팬들이 ‘클린스만표 축구’에 대해 느꼈을 첫인상이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6월 평가전 2경기에서 1무 1패라는, 만족스러울 수 없는 성적을 내며 ‘무승행진’을 이어갔다.

16일 치른 페루전에서 클린스만호는 전반 11분 만에 선제 실점한 끝에 0-1로 졌다. 20일 열린 엘살바도르와 경기에서는 후반 4분 황의조(서울)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비겼다.

특히 직전 일본전에서 한 명이 일찍 퇴장당한 끝에 0-6으로 참패한 것을 포함해 5연패 중이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75위 엘살바도르와 경기만 큰 한국(27위)이 ‘낙승’을 거둘 것이라 기대를 모으던 터였다.

하지만 클린스만호는 스포츠 탈장 수술 여파로 몸 상태가 완전하지는 않았던 손흥민(토트넘)까지 후반에 투입했는데도 무승부에 그쳤다.

한국은 페루전과 엘살바도르전에서 각각 14차례씩 슈팅을 시도했으나 1골에 그칠 정도로 골 결정력이 안 좋았다. 상대의 빠른 공격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마크해야 할 선수를 놓치는 등 수비 집중력에도 문제를 보였다.

무엇보다도 어떤 식으로 상대를 공격하겠다는 ‘계획’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좀처럼 물리서는 법이 없는 클린스만 감독은 시종일관 공격적으로 교체 카드를 써서 팬들의 흥미를 돋웠다.

엘살바도르전에서는 후반전 시작과



20일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한국과 엘살바도르의 경기.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투톱 공격라인을 가동한 것이 선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골’에 그치며 ‘빈공’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처지가 됐다.

단순히 공격수를 많이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승리를 거두기에 부족했던 셈이다.

내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우승에 도전해야 하는 클린스만호에 주어질 실전 테스트 기회가 많지는 않다.

11월 A매치 기간에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2경기를 소화해야 한다. 제대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건 9월과 10월에 치를 A매치 4경기뿐이다. /연합뉴스

서구청 강영미, 亞선수권 에페 ‘金 합작’

펜싱 남자 사브르와 여자 에페 대표팀이 아시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획득했다.

오상욱(대전시청), 구본길, 김정환(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준호(화성시청)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지난 20일 중국 우시에서 열린 2023 아시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3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여자 에페 대표팀의 송세라(부산시청), 최인정(계룡시청), 강영미(광주서구청), 이혜인(강원도청)도 한국의 단체전 3연패를 합작했다.

이들은 8강전에서 인도, 준결승전에서 일본을 제압했고, 결승에선 홍콩을 39-31로 따돌렸다.

한국은 13회 연속 아시아선수권대회 종합 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도약의 길목에서 난적 전북과 빅뱅

광주FC, 오는 24일 안방서 무패행진 도전



꿀맛 같은 후식을 마친 프로축구 광주FC가 홈에

서 승리를 향해 달린다. 광주는 오는 24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전북현대와 하나원큐 K리그1 2023 19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휴식이 돌입 전 진행된 대전 하나시티즌 원정에서 1-1 무승부를 기록, 무패 기록을 6경기로 늘렸다(4승 2무·FA컵 포함).

좋은 분위기가 속 컨디션 회복과 체력 충전에 만전을 기한 광주.

특히 6월 말로 접어들면서 심해진 무더위와 함께 최근 전력 가진 전북과의 2연전(FA컵),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 울산현대전까지 강행군을 앞두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다.

어려운 고비가 눈앞에 있지만 광주의 뜨거운 화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팀 전력의 핵심이자 대표팀에 차출된

정호연과 아사니는 차출 기간 동안 각각 도움과 득점을 기록하며 최고의 몸상태를 과시 중이다.

수원삼성전 멀티골의 주인공이자 17라운드 MVP 토마스도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으며 두현석과 김한길 등 측면 수비수 또한 공수에서 만점 활약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안영규와 티모의 철벽 수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두터워지고 있다. 이번 상대 전북은 K리그 최다 우승 팀이다.

시즌 초 부침을 겪었으나 최근 3연승과 함께 8승 3무 7패 승점 27점으로 5위에 올라있다.

또 문선민, 송민규, 구스타보, 김진수, 조규성 등 공수 전반에 걸쳐 화려한 스쿼드를 자랑한다.

역대 전적 또한 14승 5무 1패로 광주에게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광주에게 포기란 없다.



광주FC 토마스가 지난 7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수원삼성과의 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후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는 오히려 우승 후보인 강팀을 상대로 물리치지 않고 좋은 경기력을 펼쳤다.

이번 전북과의 연전에서도 타이

한 압박과 매서운 공격으로 상대 골문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광주가 전북을 꺾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희중기자



오는 10월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마니산에서 목포주경기장까지 자전거 거터여를 펼친 목포시철인3종협회 회원들이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국체전 성공기원’ 마니산서 목포까지 510km 달렸다

목포시철인3종협회, 자전거거투어

“제104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목포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동참 바랍니다.”

목포시철인3종협회는 지난 16-18일 3일간 제104회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성공을 기원하고 시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확대·여론 조성을 위해 자전거 거투어를 진행했다.

강성대 목포시철인3종협회장과 목포시철인3종협회 동호인 10여명이 함께했으며 지난 15일 목포에서 강화도로 가

16일 강화도 마니산에서 출발, 18일 목포 주경기장까지 2박3일간 510km를 자전거로 투어했다.

강성대 목포시철인3종협회장은 “3일간의 힘든 자전거 거투어였지만 전원전 성공을 기원하고 시민들의 참여 분위기 확대·여론 조성을 위해 자전거 거투어를 진행했다”며 “제104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목포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동참을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목포=정해선기자